

순천시, 봄을 여는 '생태미식도시'로 탈바꿈한다

3월 말 '2025 순천미식주간' 쿠킹체험·유명 셰프 푸드쇼 등 주요 관광지 연계 '계절 투어' 내달 2일 매곡동 탐매축제 개최

순천시가 지역 자연경관과 미식문화를 결합한 '생태미식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서 자연이 주는 먹거리와 이야기를 담아 생태미식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도심 곳곳에서 봄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말 '2025 순천미식주간'을 개최한다.

봄철 순천의 산과 들에서는 썩, 미나리, 오이, 취나물, 두릅이 채취되며 순천만 갯벌에서는 도다리, 바지락, 가리맛조개, 칠게, 함초(통통마디) 등을 즐길 수 있다.

이에 시는 이번 미식주간을 순천만국가정원 스페이스허브(남문광장)을 거점으로 펼칠 예정이다.

'정원에서 미식 흥 피크닉'이라는 주제로 쿠킹체험, 정원피크닉, 유명셰프 푸드



순천시가 지난해 순천미식을 알리기 위해 미식주간 요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쇼 등을 비롯해 도심을 파고든 시장투어, 미식과 관광이 결합된 '로컬 미식투어' 등 순천만의 독특한 미식여행을 선사한다.

순천맛집과 관광을 결합할 수 있도록 순천맛집 100선·로컬빵집 선정과 순천미

식대접을 통한 순천 '최고의 맛집'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K-미식벨트 30선 중 '전통차', '바베큐' 분야와 같은 지역의 미식자원을 중심으로 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드라마

촬영장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계절별 미식투어'를 운영해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미식과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겨울 끝자락부터 봄철까지 피어나는

순천의 다양한 꽃 축제도 소개했다.

2월 매곡동 일대에서는 분홍빛 홍매화가 봄을 알리는 만큼 시는 당초 오는 22일 탐매희망센터 일원에서 제7회 매곡동 탐매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 한파 등으로 홍매화의 생육이 부진함에 따라 일주일 늦춘 오는 3월2일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에는 매화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매화꽃 만들기, 매화 소원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지역 공방의 소품을 판매하는 플라마켓, 먹거리 부스를 비롯해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문화공연, 기독교역사 마을 해설 투어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3월에는 동천변 벚꽃이 도심과 자연을 화사하게 수놓으며, 4월에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튜립, 유채꽃, 금어초 등 다채로운 봄꽃이 장관을 이룬다. 5월에는 동천 둔치를 따라 조성된 장미터널이 형형색색의 장미로 가득 채워진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천혜의 자연 속에서 자란 미식 자원을 바탕으로 순천만의 이야기가 흐르는 미식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미식을 통해 순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2025 고향사랑기금 사업 4개 선정

장애복지·생활체육 사업 등

순천시는 최근 2025년 제1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4개의 기금사업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금사업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지원사업 △순천만 크고니 서식지 조성사업 △건강한 생활전문 체육진흥사업이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석축 보수·배수로 보강 공사 등을 통해 산사태, 침수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농번기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

촌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지원한다.

순천만 크고니 서식지 조성사업은 크고니의 종 보전을 위해 먹이인 새섬매자기 확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민을 고용해 생태계 복원형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정기부사업인 건강한 생활전문 체육진흥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다양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지원을 통해 체육 저변 확대와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시는 지정기부 사업을 제외한 3개의 기금사업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금된 기부금액을 재원으로 이르면 이번 달부터 추진해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정기부 사업은 해당 사업의 목표 모금액이 달성되면 추진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보건소·경로당 등 26곳 55억 투입

순천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 보건소, 국공립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고성능 창호, 고효율 단열재, 환기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원 대상에 선정된 공공건축물

은 동부종합복지관 어린이집, 하사보건진료소, 경로당 등 26곳으로, 시는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국비 35억원, 시비 20억원)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26년 추가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사전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까지 보건소와 어린이집 등 17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왕조1동 희망누리봉사단이 지난 11일 조례호수공원 주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왕조1동 희망누리봉사단, 조례호수공원 환경정화 활동

순천시 왕조1동은 최근 지역 봉사단체인 희망누리봉사단이 조례호수공원 주변에서 탄소 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환경보호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일상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봉사단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표어 아래 공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담배꽂초, 페트병 등을 수거했다.

한편, 희망누리봉사단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올 한 해 경로당정소, 거리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순천시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순천시는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희망저축계좌 I (3월), 희망저축계좌 II (4월),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의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먼저 희망저축계좌 I 은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시 매월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 기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통장 만기일 6개월 이내에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기 시 1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정부 지원금 1080만원)과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II는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기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본인 적립금을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부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가입자부터는 매월 정부 지원금을 1년차(10만원), 2

년차(20만원), 3년차(30만원) 단계적으로 상생 매칭해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입 기간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30만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는 10만원을 매월 지원한다.

각 계좌별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61-749-6262)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